

웨스트민스트 대학 졸업식 특별연설

"자유를 향한 아시아의 길"

1966. 10.6. 당시 김종필 공화당 의장은 미국 미주리 주 풀톤 시에 있는 웨스트민스트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여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연설했다. 이 연설은 영국수상 윈스턴 처칠이 이 대학에서 행했던 '철의 장막' 연설 20주년을 맞이해 진행됐으며, 이 대학 연설은 동양인으로는 최초였다.

존경하는 데이비드슨 총장, 귀빈, 신사숙녀, 졸업생 여러분. 나는 오늘 유서 깊고 명성 높은 본 대학에서 저명한 연사들의 뒤를 이어 강연을 하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제가 선 이 자리는 1946년 3월, 금세기의 위대한 '세계의 길잡이'였던 고故 윈스턴 처칠 경이 '철의 장막'과 그로 인한 냉전을 갈파하면서 2차 대전 후 초점 잃은 세계의 이목을 구라파에 돌리게 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처칠 경은 2차 대전 후의 양극화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적중했고, 미국과 서구제국의 공동 노력은 자유구라파의 재건을 성공케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인류는 '냉전냉戰'이라는 괴이한 형태의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국제관계는 다원화됐고, 세계사는 새로운 질서를 찾아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20년 전 처칠 경은 대서양을 건너서 구라파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곳에 왔었습니다. 나는 오늘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열전熱戰이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단 위에 올라 왔습니다.

나는 '오늘의 아시아', '세계 속의 아시아'를 이야기해 보렵니다. 그리고 세계 속의 아시아로부터 '내일의 세계'를 내다보렵니다. 이것은 곧 같은 태평양 연안국인 여러분의 미국을 통해서 내일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시아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철학, 그리고 심오한 윤리와 문화가 있으면서, 분열과 침략과 욕구불만으로 가득 찬 이질성 속에서 신음해 왔습니다. 아시아는 무진장



미국 미주리주 웨스트민스터대학교에서 에드워드 윌리엄총장으로부터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고 있다. 이어 '자유를 향한 아시아의 길'이란 주제로 영어 강연을 하여 갈채를 받았다.

의 자원이 있으면서, 빈곤과 기아에서 헤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과 끊임없는 비극 속에서도 '아시아적 인내성'에 희망을 가지고 각성한 수억의 자유민들이 스스로 내일을 찾아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참된 이해와 협조 있는 세계에서 신의를 지켜가며,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된 바탕에서 살기를 기원하는 여러분의 벗이요 반려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아시아적인 문명이 앞날의 세계문명의 형성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의를 지니게 하기 위하여 오늘의 서구문명이 갖는 세계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아시아라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점들은 아시아의 문제점들이며 세계문제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계 속의 아시아'

의 보편성은 세계적 보편성으로 통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평화는 인류가 수립할 수 있는 최고의 덕德입니다. 원자력도, 어느 주의主義도, 사상도 평화의 원동력은 아닙니다. **평화의 원동력은 '인류의 뭉친 양심'인 것입니다. 인류의 생생한 양심을 통해서 평화는 당신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고 나 자신의 희생으로 이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유산인 것입니다. 평화에의 '길'은 피부, 인종, 국적, 전통, 환경 여하를 막론하고 당세대를 호흡하는 누구나가 그를 위해 봉사해야 할 기피할 수 없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 사명을 인식하고 일어서서 평화에의 원동력을 눈부시게 강화하고 발휘하기 시작한 국가가 있으니, 이는 바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한국은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는 어지러운 역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1961년까지 약 30억 불의 원조를 미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한국은 그 전년前年に 있었던 부정선거에 직접 동기를 둔 학생혁명과 과도정부에 뒤를 이어 정계의 분열과 난맥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 경제적 파탄, 부정부패의 만연, 사회기강의 문란, 군부 내의 동요, 공산분자들의 *발호跋扈 등 극도의 혼란상을 빚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난맥상은 사실 한국 스스로의 입장에서 보나 한국에 줄기찬 원조를 해온 미국의 입장에서 보나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1961년 5월의 군사혁명을 전환점으로 한국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2년의 군정이 끝난 1963년 10월에 실시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총선에서 군사혁명을 주도했던 박정희대장은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그가 영도하는 민주공화당은 국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민정民政으로 내뿜은 정계는 비로소 안정됐습니다. 1962년부터 금년까지朴 대통령은 조속히 자립할 수 있는 경제력 배양을 위한 제1차 5개년계획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오늘의 한국경제는 1961년에 비해서 전력, 비료, 시멘트, 석유화학, 석탄, 제철 등 기간산업을 포함한 각종 생산량은 2배 내지

10배로 비약했으며, 2백여만 명의 실업자 중 그 반 이상이 취업했습니다. 특히 식량증산에 있어서는 1970년이면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아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밝은 전망이 섰습니다. 절망에서 소생하여 연평균 7.6%의 고도성장률을 보이며 발전하는 한국은 5년 전에 비하여 수출액이 6배로 늘어났으며, 그중 공산품이 62%를 차지하는 급격한 공업화를 이룩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착실한 기반 위에서朴 대통령은 작년 8월 아시아 현안문제의 하나였던 한일 국교정상화를 이룩했습니다. 이로써 한일 간의 14년 회담이 성공하는 동시에 3백여 년간의 민족적 감정으로 대립했던 한일 양국이 상호 협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가적 이익 앞에는 약속이나 신의가 *창이敝履처럼 버려지기 쉬운 오늘날, 국제사회 속에서 지켜지는 국제적 의리는 그러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다분히 아시아적인 것입니다만, 아시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아 속에서 이를 더욱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아시아가 지니는 명제에 따라 아시아의 해결을 위해 지금 어느 때보다 과감하며, 아시아인 사이에 공감의 세계가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앞장서서 아시아를 '평화의 밭줄'로 굳게 결속해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밭줄'은 아시아의 자유국가들 한 나라 한 나라를 굳게 연결하여 위대한 아시아를 형성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밭줄'은 앞으로 아직 평화와 자유를 등지고 사는 여타의 아시아지역에까지 연장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운동을 한국은 이미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궁극적인 평화란 공산진영과의 유화宥和에 의한 공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유진영의 힘을 결속하여 평화와 자유화운동을 능동적으로 전개해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신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한 번 유화宥和 아닌 '평화의 밭줄'로 묶는 자유아시아권 형성만이 공산침략자들의 음흉한 기도를 사전

에 분쇄하는 첩경임을 강조합니다. 미국이 아시아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세계사에 비극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미국의 아시아에의 관심은 구라파에의 그것에 비해 훨씬 늦고 소극적인 것이었지만, 오늘날 아시아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의 운명과 직결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통찰의 결핍으로 인하여 아시아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속하지 못했던 일을 솔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아시아는 결정적 시기에 다다랐습니다. “대기大機는 불재래不在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아시아 평화에의 큰 기회를 일실逸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후일의 사가史家들이 “아시아에서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던들 ….” 하고 오늘의 정세를 회고하며 개탄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1950년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침공했을 때가 아시아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아시아권 형성의 막바지 고비라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의 미국의 대亞아시아 협력은 1950년대보다도 더욱 강력하고 더욱 면밀해야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발전이 자유우방들의 동등한 발판과 공동책임 하의 참여라는 원칙에 입각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면, 미국의 대亞亞 정책은 일국一國 중심세력에 치중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각국을 동일시하는 아시아를 위한 새로운 자세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시아 공동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는 좌절될 우려가 큰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의 신생국들의 발전이 근대화를 지향하는 추진세력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개인적 지도력만을 요구하던 단계를 벗어나 바야흐로 국민들의 의욕을 바탕으로 한 조직을 가진 정치지도자, 그리고 정치세력을 미국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행된 양차兩次 대전을 통하여 사람들은 미국이 ‘인류 최후의 희망’이라고 불렀

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이처럼 남의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전하기 위해 최후의 보루 노릇을 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희망의 마지막 보루’라는 호칭은 남을 위해 노력한 미국에게 준 이름입니다. 그것을 결코 배부른 은사隱士로 만족하는 미국에게 주어진 칭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7월 존슨 대통령은, “아시아는 지금 독립과 질서, 그리고 생명 그 자체를 위한 인간투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무대가 되고 있다. 만약 아시아에 영원한 평화가 온다면 모든 인간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만약 아시아의 평화가 달성되지 못한다면 미국의 업적은 어디서나 안전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세계의 진실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미국이 ‘인류 최후의 희망’이기보다는 먼저 자유민들과 더불어 이상의 실현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고 공헌하는 것이 ‘스스로의 과제’라고 주장하겠습니다. 나는 강력한 ‘평화의 밭줄’에 의하여 결속된 자유아시아권이 다시 서구의 자유권과 튼튼히 묶여질 때 비로소 세계평화는 확고한 기반을 잡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야말로 자유진영은 녹슨 ‘철의 장막’도 낡은 ‘죽의 장막’도 걷어치울 수 있고, 공산 측과 타협할 수도 있고, 그 때야말로 유화정책도 실효를 보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랜 어둠에서 뛰쳐나온 아시아는 이제 세계의 무대 앞에 밝은 등불을 내들 것입니다. 다시는 어둠 속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는 의지와 용기와 정열이 우리 아시아인의 가슴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정녕 아시아는 매혹적이고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운 세계의 반려자伴侶者가 될 것입니다. 그 길 위를 바로 여러분의 벗 대한민국이 아시아 자유국가들과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찬란히 비쳐주는 태양을 향하여…, 그리고 평화를 향하여….

*발호號鬪: 권세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

*장이敵履: 헌신짝

※관련기사 전문은 홈페이지 www.kimjongpil.com에 실려 있습니다.

제8회 'AEI 월드포럼' 주제강연

"동북아와 한미관계"

1989년 6월 미국 덴버에서 제럴드 포드 전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제8회 'AEI 월드포럼'이 개최됐다. 이 포럼에는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수상 등 세계적 지도자들과 각국 정부 고위관료, 기업 지도자, 저명한 석학碩學들이 참석했다. 김종필 총재는 한국 대표로 초청 받아 '동북아와 한미관계'에 관해 연설했다.

존경하는 제럴드 포드 전 미국 대통령 각하,
존경하는 세계적 지도자,

중대한 국제문제에 관한 세계의 지도적 토론장인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orld Forum에서 본인이 대한민국의 신민주공화당 총재로 연설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느 다른 주제에 대해서보다 한미관계의 현황과 그 미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이미 뿌리 깊이 내린 전통적인 우호보다도 최근 몇 해 사이 요란스럽게 표면화된 갈등이 더 크게 주목되는 두 나라 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한국민에게는 물론 미국민들에게도 유익하고 시의적절하기 때문입니다.

한미관계의 발전방향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나라의 관계가 이미 1세기의 연륜을 쌓아 왔다는 사실이 상기되어야 하겠습니다. '은둔隱遁의 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국제정치의 격랑 속에 휘말리면서 태평양 너머의 신흥강대국인 미국과 정식 수교한 1882년으로부터 어언 107년이 지나온 것입니다. 한반도에 인접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는 경우, 미국이 한국의 첫 번째 수교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두 나라가 얼마나 오랜 벗이었는가를 웅변합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우여곡절 속에서도 한미 두 나라는 두터운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2차대전의 종결을

전후한 시점으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련도가 높아지면서 두 나라 관계는 특수한 관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놓고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차이가 큰 두 나라를 특수한 우호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본인은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통된 신념이라는 이념적 요인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인간의 창의성은 보장되어야 하고 어떠한 힘도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앙은 두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의 울타리 속에 결속시킨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 이념적 공통성에 균열이 발생했을 때 한미관계에는 심각한 갈등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보다 솔직히 말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궤도에서 벗어남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이념적·제도적 양립性兩立性이 약화된 경우, 미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국내정치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자라났으며, 그것은 한미관계를 긴장시키곤 했던 것입니다. 그 긴장은 두 차원에서 나타났습니다. 미 행정부가 대한對韓 비판여론을 수용해 한국 정부에게 일종의 압력을 가할 때, 한미관계는 공식적 차원에서 이른 바 불편한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공식 관계가 큰 어려움을 겪음이 없이 우호를 유지할 때, 한국

민의 차원에서 반미감정)이 자라난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싹트고 1980년대에 들어와 확산된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의 공공연한 반미감정의 표출은 그러한 시각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는 본인에게 우리 국내문제에 대한 외국인의 간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참견조차 못마땅합니다. 그러나 못마땅한 것과 인정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이 바로 정치와 정책의 출발점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뜻에서, 본인은 오늘날 한미관계의 발전적 전개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있는 반미주의의 본질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자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 한국 내에서 점증하는 반미감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한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화를 성심성의껏 추진해나가 1990년대 전반에는 서구 선진국가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산업화를 경험한 다른 사회들이 그러했듯이 이념적 다극화多極化 현상을 보이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른바 침묵하는 다수는 한국의 안전과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이념적 합의는 자유민주주의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유민주주의에 결함이 없지 않고 한국적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역시 이 이념적 노선 위에서만 개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지켜지고 국민 각자의 창성의 성이 자발적으로 발휘됨으로써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을 꾀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시민층, 그리고 이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정치 지도층이 요지부동의 자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한국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사회가 굳건히 형성되었습니다.

한미관계를 특수한 우호관계로 발전시켜온 두 번째 원동

력으로 본인은 전략적 이해관계의 일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반도는 미국·소련·중국·일본 등 4강의 이해가 동시에 얽혀있는 곳입니다. 해양세력을 대표하는 미국이 또 하나의 해양세력인 일본과 제휴하여 공산 양대국으로 대표되는 대륙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적 거점이 바로 한반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전략적 요인은 이념적 요인과 표리관계表裏關係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동맹함으로써 또한 일본의 안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흔히 일본을 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체제의 초석이라고 부르는데, 한미군사동맹은 바로 미국의 국가이익에 사활적死活的으로 중요한 일본의 안전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온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또 미일 안보체제와 더불어 미국의 태평양 안보체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미군사동맹이야말로 국제적으로 서방세계의 자유와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는 큰 울타리의 중요한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안의 남북 군사대결 상황에 눈을 돌릴 때, 한미군사동맹체제의 긴요성은 더욱 절실히 집니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에 비해 우월한 군사력을 지닌 북한의 이른바 남한 해방노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입니다. 북한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관계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본인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가장 이성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무력으로 도발해 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군사동맹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한미관계의 전략적·군사적 측면에 대한 본인의 이러한 견해가 오늘날 한국의 일부 학생층과 청년층에서는 보수주의적이며 친미주의적이고 심지어는 외세의존적外勢依存的인 것으로 비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솔직히 시

인하고자 합니다,

2차대전이 끝난 이후의 국제관계사에 대해 반전통주의적 해석을 취하는 이른바 수정주의 학파의 이론에 영향 받은 그들은 미국을 제국주의국가로, 그리고 한국을 미국의 종속국가로 파악하면서 미군의 철수와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폐기마저도 제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 밑에 때때로 순수한 민족주의적 감정이 흐르고 있으며, 또 1980년 광주(光州)의 비극 당시 미국이 취한 태도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국민의 대다수는, 그리고 반정부적인 학생들 가운데서조차, 1988년의 서울올림픽 개최를 고비로 선진국가로 힘차게 발돋움 하고 있는 자신들의 조국을 미국의 종속국으로 비하卑下하는 견해에 부정적이며, 한미 안보관계는 돈독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제까지 이념적 차원과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관계의 현황과 미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두 차원에서는 비록 부분적으로는 갈등이 있겠으나 전통적인 유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개진했습니다.

바야흐로 국제정치와 국제경제에는 태평양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태평양지역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 작은 증거가 이른바 태평양제품(太平洋製品, Made in Pacific)이라는 새로운 용어의 보급입니다. 그것은 태평양지역 국가 간의 협력을 상징함과 더불어 태평양시대의 전개를 웅변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국제관계의 시대 곧 태평양시대를 이끌어 나갈 잠재적인 국가들 가운데 선두주자로 세계의 석학들은 한국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몇 해 안에 선진국의 대열로 올라선다면 한국은 의심의 여지없이 그러한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것인데, 여기에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와 돈독한 유대가 필수적입니다.

본인은 한미 두 나라 국민이 한미관계를 반드시 것처럼 생산적이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본인은 두 나라 관계의 장래를 낙관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전문은 홈페이지 www.kimjongpil.com에 실려 있습니다.



윤정을 한국대표로 초청한 포드 전대통령과 기념 촬영. 포드 왼쪽에 김용채 원내총무와 윤정 오른쪽에 김용환 정책위의장.